

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.

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는 10.22일자 「유니콘 키운다면서 예산은 싹둑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%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.” 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
 -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은 신용평가등급 B+ 이상인 중소기업으로, 일반 정책자금 대상보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일부 예산이 축소
 - * 스케일업 금융 예산 : ('24년 본예산) 1,000억원 → ('25년 정부안) 600억원
 - 다만,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 자금, 일시적 경영애로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, 재창업·사업전환·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
 - *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 : ('24년 본예산) 2,005억원 → ('25년 정부안) 3,825억원
 - *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: ('24년 본예산) 1,500억원 → ('25년 정부안) 2,500억원
 - *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: ('24년 본예산) 5,318억원 → ('25년 정부안) 7,501억원
 - * 중소기업정책자금 예산 : ('24년 본예산) 4조 5,072억원 → ('25년 정부안) 4조 5,294억원
- 스케일업금융 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으나,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은 금년 대비 1,000억원 추가 공급('24년 4,000억원 → '25년 5,000억원)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조성우 (044-204-7520)
		담당자	사무관	조무근 (044-204-7524)
	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상천 (044-204-770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 (044-204-7703)
	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민 (044-215-731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문 (044-215-731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